



■ 토 론 1.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귀촌·귀농인의 역할 토론문

구 동 관

충남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
실용교육팀장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귀촌·귀농인의 역할 토론회

구동관 (충남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 실용교육팀장)

1. 들어가는 말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충남에는 727가구가 귀농을 하였고, 2012년 상반기의 조사에서도 지난해의 추이를 이어가는 등 귀농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증가는 농촌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함께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귀농 귀촌인의 역할을 주제로 도농 상생을 위한 귀농·귀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조명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대해 나가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토론회는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정착형태 분석

발표자의 논의는 귀농·귀촌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끼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귀농·귀촌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침체된 농촌지역사회에 활기를 넣어줄 방안과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시점에 발표자의 이런 논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정착형태(제2장), 귀촌귀농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제3장)으로 나누어 논의를 이어간다.

○ 귀농 정착형태와 관련하여

정착형태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자의 일반적 특징과 귀촌·귀농의 실태파악, 귀촌·귀농의 유형별 특징 등 다양한 부분의 실태조사의 내용들은, 귀농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귀농지원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본 토론회자는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귀농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는 농사나 전원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력 등 정착의 여러 요인에 대한 스스로 능력을 파악해야 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귀농·귀촌자가 귀농과 귀촌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하였는지 세부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의 준비 상황과 준비가 부족한 실태가 파악되면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을 보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절한 보완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발표자의 자료에는 귀농·귀촌인의 어려운 점에 대한 내용은 정착 후 애로사항만이 파악되어 있

는 상황이다. 귀농인의 애로사항은 정착후의 힘든 점들에 대해 인식하고, 정착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귀농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귀농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착과정에서도 정착 초기와 정착 후기의 애로점들을 다를 것이므로, 각각의 시기에 어려운 점들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도움이 가능할 것이다.

- 또한,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부담하게 되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분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귀농인의 유입으로 나오는 금액과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중앙정부, 떠났던 지자체, 유입된 지자체의 적정 분담 비율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귀농자들이 떠났던 지자체는 복지비용의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등의 혜택이 예상되는바, 그런 예상 비용을 귀농을 위한 적극적 교육지원등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3. 귀농 귀촌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 발표자가 귀농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안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기존의 발표들에 비하여 귀농을 사회적 경제주체로 만들기 위한 진일보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주체로 만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 연대를 매개체로 사회경제적 조직 활용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인 지원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몇가지 논의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귀농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농촌사회를 활력화 시킬 제안들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의 역할에 앞서 귀농인 스스로 귀농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발표자는 귀농·귀촌인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살펴보고 기존의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고립되고 귀농·귀촌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리고 귀농 전문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해결과 사회경제적 방식으로 살아가기, 적정기술 활용등에 대하여 제안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이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귀농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사전교육이다. 귀농이 문화적 이민으로까지 불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귀농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농촌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해결 방안이 아니라, 농촌을 이해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한발 더 나간다면, 농촌에서는 도시에서 취업이 녹록치 않아 농촌지역을 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의 터전에서 멋진 청춘의 꿈을 펼칠 청년 귀촌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 발표자가 귀농인들이 사회경제적 조직의 설립과 관련하여, 단순히 귀농·귀촌인들만 잘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사회에 너무 급하게 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농업에서도 그렇고, 조직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조급함은 농지의 구입에서도 나타난다. 본인이 농사에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또한 어떤 농사를 지을지 생각하지도 않고 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그 비용을 용자나 보조금만으로 충당하고 싶어 한다. 귀농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작목을 선택하고,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땅만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첫 농사는 얻어서 짓거나 배우면서 짓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귀농인의 조직 활동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위인 작목반의 가입의 경우를 따져보자. 귀농자들은 작목반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작목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농자의 작목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없어 작목반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말한다. 작목반의 이름을 걸고 상품을 출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귀농인이 아직은 농사를 잘 짓지 못해 작목반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귀농인들이 농촌의 지역사회에 포함되고 조직에 들어서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귀농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귀농·귀촌에 있어서 우리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누리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를 바란다. 농촌의 지역사회에서는 귀촌인 보다는 귀농인들을 바란다. 그중에서도 성실하고 착한 젊은 귀농인들이면 딱 좋다. 귀촌인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직 귀촌인들은 지역사회 봉사에 대하여 움직임이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귀촌인들에 대한 농촌 지역의 생각은 싸늘하다. 오히려,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된다. 귀촌인들끼리 모여서 섹스폰 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까지 바람들게 한다고 걱정을 한다. 귀농귀촌인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갈등도 문제다. 귀농인들은 농촌의 마을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한다. 지역의 마을 주민들도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다. 충남 농업기술원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올해부터 몇가지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첫 번째는 귀농할 사람들에게 농촌의 현실을 바르게 알리자는 것이었다. 서울로 올라가서 귀농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농 적성을 테스트하고 귀농에 맞는 사람들이 귀농하도록 안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충남에 대해서 귀농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귀농투어를 통해서 현장으로 안내하고, 현장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이런 절차를 귀농에 대한 현실을 조금 더 잘 알게 하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또 한가지의 방법은 귀농·귀촌 선배들을 통하여 귀농인을 돕는 것이다. 홍성과 서천의 귀농지원센

터는 공무원의 개입을 줄이고 귀농선배가 귀농 희망자와 귀농 초기단계의 후배들을 도와준다. 귀농 선배들은 귀농초기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지원이 가능하다. 충남농업기술원에는 2013년부터 전시군에 귀농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귀농인을 도울 계획이다.

4. 맺는말

귀농·귀촌은 앞으로도 한동안 농촌문제의 화두가 될 것이다. 귀농과 귀촌의 증가는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고, 농촌의 갈등을 커지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생각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바라는 것이다. 이번 논의가 귀농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고, 농촌의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발제에 감사드린다.